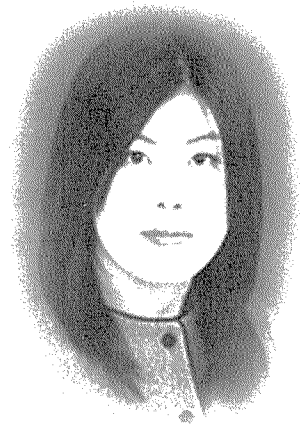


도서관인의
窓

학교도서관 사서의 작은 행복

글 : 최재은*



2003년 4월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부천북여자중학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도서관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사서 최재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서는 4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책갈피 나눠주기 행사를 갖습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3월 신입생 도서관이용자 수업을 하고 진급 처리며 전입·전출생 처리 그리고 신입생 바코드 발급이 끝나고 나면 제일 처음으로 하는 도서관 행사이기 때문에 책갈피 나눠주기 행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좋아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도서관의 위치는 이미 이용자 수업을 통해 알고 있으나 책을 빌리는 방법 또는 스스로 책을 고르는데 어색해 하던 학생들에게 책갈피를 받으려면 책을 빌려야 한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은 아침부터 도서관을 시끌벅적 하게 해줍니다. 이날 책갈피를 받는 행운의 주인공은 선착순으로 책을 빌리는 학생에게만 그 행운이 돌아갑니다. 시간도 쉬는 시간은 번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대출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도서관에 들어와 대출하려는 책과 학생증을 들고 대출 반납대를 지냅니다. 대출 반납대 바로 옆 도서관의 출입문이 있는데 도서관 학생들은 상자에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가지각색의 책갈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손을 넣고 책갈피를 고르는 것으로 행사의 재미를 더

해줍니다. 아이들은 자기도 책을 빌렸다는 뿌듯함과 함께 선착순으로 책을 빌려야만 주는 책갈피를 받았다는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끼며 도서관 밖을 나가게 됩니다. 책갈피의 내용은 양면으로 한쪽 면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 및 동화의 주인공을 인쇄하고 뒷면은 독서에 관한 명언을 실습니다. 때문에 이는 기존의 서점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 받는 책갈피와는 다른 우리학교 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4월 22일에 300개의 책갈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서관과 도서부 학생들이 통해 홍보를 합니다. 발그레한 얼굴로 "선생님 올해는 책갈피 선착순 몇 명 나눠주시나요?" 또는 슬픈 얼굴을 지으며 "선생님 점심시간에 화단청소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울상을 짓는 아이까지 다양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도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학교도서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도서관을 들어올 때 별을 박은 듯 반짝거리는 학생들의 눈빛과 종알종알 친구들과 책의 내용을 나누며 밝게 미소 짓는 그 미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하루 투쟁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학교도서관사서선생님들에게 화이팅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화이팅!

* 부천여자중학교 사서교사, holm98@nate.com